

대전 아파트값 상승세 타나... 3.3㎡당 1462만원

전월대비 0.7% 올라... 상승률 전국 최고

지난달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아파트값은 평당(3.3㎡) 1462만3000원으로, 전월대비 0.7% 상승하며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31일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2006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매가격이 1997만9000원을 기록한 전월대비 0.4% 오른 가격이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00만원을 넘은 것은 지난 4월(2014만3000

원)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해 6월 평당 2272만1000원까지 올랐던 전국 아파트값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7월 1991만9000원까지 내렸으나 다시 반등에 나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 아

파트값은 평당 4694만2000원을 기록, 전월대비 0.5% 상승했다. 수도권도 지난 9월 2875만1000원으로, 전월보다 0.5% 올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전월 1452만4000원에서 1462만3000원으로 0.7% 올랐다. 이어 충북이 0.5%(940만6000원→945만2000원), 인천은 0.4%(1630만

1000원→1636만6000원) 상승했다. 공사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분양가가 지속해서 오르고 있고 청약 경쟁률 역시 높게 형성돼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산과 제주는 지난달 아파트 가격이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부산은 1622만5000원, 제주는 2001만1000원으로 각각 0.1% 내렸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실질적인 시장 금리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아파트 거래 증가에 기여했던 특별보증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에 제동이 걸리면서 매수세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힘겨루기하면서 연말까지는 아파트 매매가가 보험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배 기자 y2k425@dailycn.net



우성어패럴 생상품.

(사진=우성어패럴 제공)

우성어패럴, 다양한 기술로 차별화된 제품 선보여

맞춤 단체복 피복 제작... 대학·정부 기관 등 납품

맞춤 단체복 피복 제작 전문업체인 우성어패럴이 차별화된 제품력을 선보이고 있다. 31일 우성어패럴에 따르면 맞춤 단체복 피복 제작 전문업체로서 기존의 기성복을 탈피해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 퍼스널리티 옷을 기획·생산하고 있다. 또 편안한 착용을 위해 기능적이고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디테일 하

나까지 차별화된 제품력을 돋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 노하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작하고 있다. 특히 전국 50여개 대학교의 항공 계열학과, 군사계열학과, 경찰계열학과, 소방계열학과 등 정복 및 각종 부착물 집합을 납품 중이며 정부 기관으로는 몇몇 시, 도, 군 자용

방법대, 환경보안관, 전자통신연구원, 지역별 로타리 단체, 안산시청의 근무복을 납품 중이다. 우성어패럴 관계자는 “미래에 발맞춰 보다 나은 서비스로 수요자 중심형의 제품을 찾아내는 장인정신을 가지며 연구개발·기술혁신·지속 가능한 패션사업의 경영목표로 고객 감동의 명가로서의 기치 아래 고객 가까이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의영 기자 young0425@dailycn.net



수자원공사, 혁신챌린지 개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30일 대전 본사에서 ‘혁신챌린지 Final Contest’를 개최했다. 올해는 업무혁신, 지역상생, 안전혁신, 고객서비스 혁신 등 4개 분야에 총 125개 팀, 5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혁신 아이디어 과제를 출품, 실행했다. 대상은 한강수도지원센터의 ‘작은 공간의 혁신: 수돗물 품질관리 게임체인저, 입체형 여과 밸브’ 과제가 선정됐으며 금상에는 금강유역관리처의 ‘지긋지긋한 낙뢰사고, 이젠 안심해도 됩니다!’, 경북 지역협력단의 ‘수입센서 기반 저비용, 고효율 누수감지 기법 혁신실’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30일 대전 본사에서 ‘혁신챌린지 Final Contest’를 개최했다. 올해는 업무혁신, 지역상생, 안전혁신, 고객서비스 혁신 등 4개 분야에 총 125개 팀, 5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혁신 아이디어 과제를 출품, 실행했다. 대상은 한강수도지원센터의 ‘작은 공간의 혁신: 수돗물 품질관리 게임체인저, 입체형 여과 밸브’ 과제가 선정됐으며 금상에는 금강유역관리처의 ‘지긋지긋한 낙뢰사고, 이젠 안심해도 됩니다!’, 경북 지역협력단의 ‘수입센서 기반 저비용, 고효율 누수감지 기법 혁신실’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계룡건설, 스마트 안전경보장치 특허 취득

근로자 다양한 위험요인 쉽게 인지... 사고 예방 도움

계룡건설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한 ‘스마트 안전경보장치’가 특허청에 등록됐다. 31일 계룡건설에 따르면 스마트 안전경보장치는 위험원과 근로자가 일정거리 이내 접근시 근로자에게 경보음과 음성 메시지를 함께 보내 위험사항을 알려주는 장치다. 안전경보장치는 위험원에 부착하는 송신기와 근로자가 휴대하는 수신기로 이뤄져 있다. 중장비 작업, 자재하

상 작업, 추락위험지역 등 다양한 작업 환경에 따른 위험 요소와 변경 설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확한 안내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로 설정이 가능하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안전경보장치로 인해 근로자들이 현장내에서 다양한 위험요인을 바로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n.net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

신협, 주거안정 도움

신협중앙회가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상품을 출시했다. 31일 신협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대출심사서비스특약에 가입 시 예기치 못한 공제 사고가 발생하면 신협이 차주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65년 만기)까지 가능하고 만기는 대출 기간에 맞춰 1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유배당 상품으로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한다. 공제료(보험료)는 남자 40세, 30년 만기 20년 납, 간편 가입형, 가입 금액 5000만원 기준 모든 특약 가입 시 1형(정액지급형) 5만3950원, 2형(계감지급형) 2만150원, 3형(계감지급형, 무사고환급) 5만2650원이다. 고객은 대출 상환계획 및 자금 상황에 따라 1형(정액지급형), 2형(계감지급형), 3형(계감지급형, 무사고환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유병력 자라도 병력 관련 3가지 고지사항만 통과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유수정 기자 sjyoo0327@dailycn.net

행락철 교통안전문화 확산 합동 캠페인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대전충남 교통안전 네트워크 기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지난 26일과 30일 대전충남 교통안전 네트워크 기관들과 행락철 교통안전문화 확산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본부를 비롯해 고속도로순찰대(2·10지구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등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막바지 행락철 교통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 및 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계도와 졸음운전 예방 홍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본부에서 시행하는 교통사고 예보 내용 중 11월과 12월에 주로 발생하는 안개와 기온저하로 인한 도로살얼음에 대비한 안전운전 요령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문과 지속적

으로 상호협력해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는 명절과 하계 휴가기간 등에 지역 교통안전 네트워크와 민간부문 합동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스포츠영상을 제작하는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에는 민간업체 중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하레하레베이커리(‘졸리면 쉬어가자’ 개발), 신탄신휴게소(교통안전캠페인 및 홍보), 서현커뮤니케이션(교통안전 영상 제작)에 공로 인정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유수정 기자 sjyoo0327@dailycn.net

KT&G, 한-인니 수교 50주년 CSR 전개

‘상상 창업스쿨’ IR 피칭데이·K콘텐츠 소개 상상페스타 등

KT&G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대학생 창업지원 및 문화축제 개최,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글로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했다. 31일 KT&G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UNTAR 대학교에서 ‘상상 창업스쿨’ 최종 결선 행사인 IR 피칭데이를 개최했다. 또한 KT&G는 현지 대학생들에게

K-콘텐츠를 소개하는 상상페스타를 진행했다. 자카르타 주립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현지 인기 가수의 라이브 콘서트를 비롯해 K-POP 보컬과 댄스, 전통무용 등 상상유니버 클래스 참가자들의 다채로운 공연들로 구성됐다. 상상페스타 행사장 내외부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응원하는 현수막과 배너 등이 설치됐으며 행사 도중 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

상영되는 등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도 함께 했다. 이와 함께 KT&G 복지재단은 인도네시아 보고르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축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의 낡고 열악했던 건물은 내진설계가 반영된 신식 교육시설로 재탄생했다. KT&G 관계자는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문화교류를 통한 양국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한국문화 확산과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n.net

산림기술인회,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나서

제7차 안전보건교육 과정 운영... 위험성 평가 관련 등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회 교육원이 ‘2023년 제7차 안전보건교육 과정(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관리감독자 역할의 중요성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산림사업 분야 특성교육이다. 산림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강의에는 산림 및 안전 분야에 특화된 전문 강사들이 초빙돼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교육생들의 직무수행 능력 강화, 응급사고 시 대처 방법, 현장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 강화 및 인식 개선 등 산림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험성 평가 적용이 사업장 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실 있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운영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관리감독자 교육생들에게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했다. 또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직무 스트레스가 없어야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에 직무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등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교육하고 심리치료 실습을 병행해 교육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을 교육했으며 관리감독자 중심의 산림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높아진 안전 관리가 이뤄지고 나아가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영 기자 young0425@dailycn.net

한국타이어 노사, 임단협 타결... 기본급 4% ↑

한국타이어가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한국타이어와 한국노총 한국타이어 엔테크놀로지노동조합은 31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조인식을 갖고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노사는 지난 8월 22일 상견례를 가진 후 65일 만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기본급 4% 인상(경기 호봉 승급분 포함), 안전생산 장려금 200만원, 복지카드 60만원 등이 담긴 잠정 합의안에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이수일 대표이사는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덕분에 이번 협상을 원만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고객 품질 만족 제고에 나서며 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n.net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등 5개국 현지 직원 초청 교육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24~27일 해외법인 우수 직원들을 한국 본사로 초청해 ‘글로벌 톱 탠트 트레이닝’을 했다. 올해로 3회째 열린 이번 교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기술력과 기업문화를 전파하고 해외법인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 국내 직원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5개국에서 온 12명의 현지 직원들은 글로벌 사업 현황 및 ‘2030 비전’을 위한 전략 공유 △현대

그룹의 비전, 핵심가치, 역사의 이해 △충주 스마트 캠퍼스 및 주요 랜드마크 현장 방문 △기술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경북군, 북촌 한옥마을, 광장시장, 여의도 한강공원 방문을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광훈 기자 chun0041@dailycn.net